# 거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6. 12





#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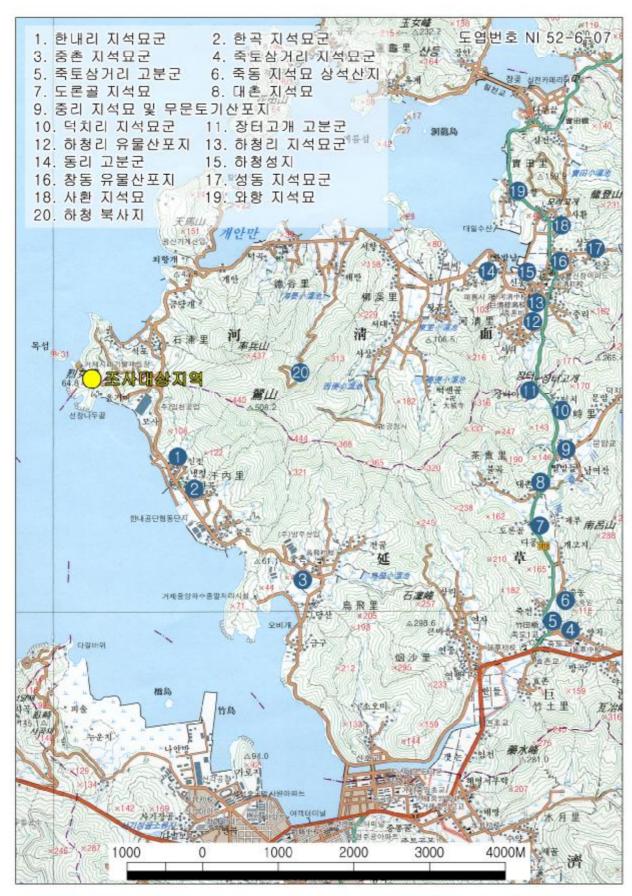
I. 조사개요	3
Ⅱ. 거제시의 환경	4
1. 거제시의 자연환경	4
2. 고고·역사적 배경	6
1) 거제시의 역사개요	6
2) 거제시의 역사관련 문헌자료	11
ш ҳҳlıll 9.	10
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개관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연초면 개관	
2) 하청면 개관	
3)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20
2. 고고·역사 분야의 조사	28
3. 사회·민속 및 지명유래 분야의 조사	29
1) 사회·민속 분야의 조사	29
2) 조사지역의 지명유래	30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34
참고문헌	35
두 화	37

# 圖面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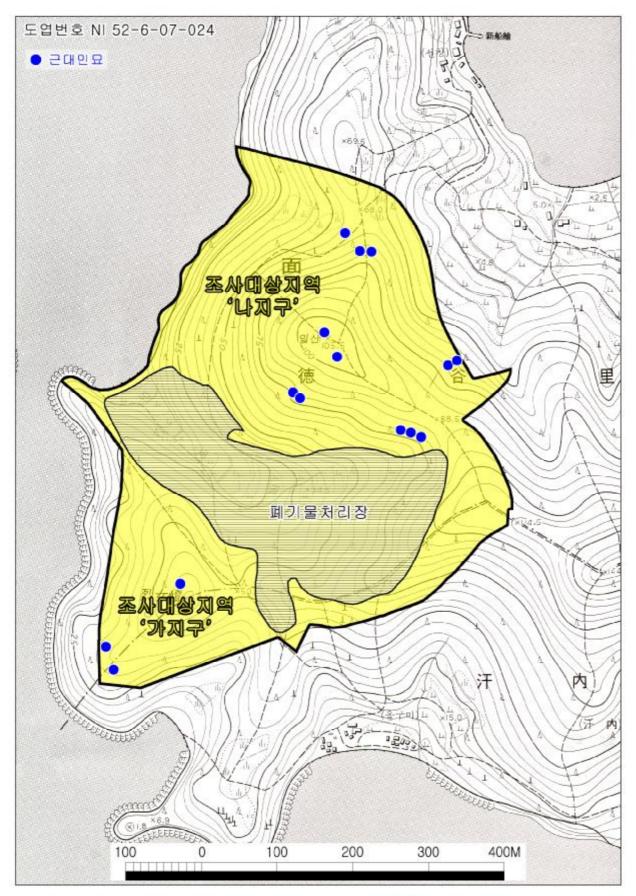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분포도(1/50,000)1	1
도면	2.	즈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2	2

# 圖版目次

도판	1.	조사지역 원경 <b>(</b> 서→농 <b>)</b>	.39
도판	2.	조사지역 원경(남→북)	.39
도판	3.	가지구 전경(북→남)	40
도판	4.	가지구 근경(남→북)	40
도판	<b>5</b> .	나지구 원경(북→남)	.41
도판	6.	나지구 근경 <b>1(</b> 동→서 <b>)</b>	.41
도판	7.	나지구 근경 <b>2(</b> 서→동 <b>)</b>	.42
도판	8.	쓰레기매립장 전경(동→서)	.42
도판	9.	근대분묘 <b>1호(북→남)</b>	.43
도판	10.	근대분묘 <b>2</b> 호(서→동)	43
도판	11.	근대분묘 <b>6</b> 호(서→동)	.44
도판	12.	근대분묘 <b>7·8</b> 호 <b>(</b> 동→서 <b>)</b>	.44
도판	13.	근대분묘 <b>9</b> 호(남→북)	.45
도판	14.	근대분묘 <b>12·13</b> 호(남→북)	.45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 I. 조사개요

우리 연구원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거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예정부지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의거 당 사업구간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받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구간내의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적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4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면적은 147,533㎡(약 44,628평)로서 현장조사는 사업지역 전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고문헌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와 학술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 여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지역은 아래와 같다.

####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임동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최희범(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박현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총조사기간 : 2006. 11. 22 ~ 2006. 12. 21

• 예비조사 : **7**일

• 현장조사 : **5**일

• 자료분석 · 정리, 보고서 작성: 18일

■ 조사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47-4번지 일원

■ 조사면적: 147,533 m²(약 44,628평)

■ 의 뢰 처 : 거제시(환경관리과)

# Ⅱ. 巨濟市의 環境

# 1. 巨濟市의 自然環境

거제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경상남도 남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남쪽에서 동쪽으로 긴 해안선을 따라서 많은 섬들이 있는데, 동북쪽으로 가덕도를 건너 낙동강하구의 대저벌판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의 영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잔잔한 내해를 끼고, 마산·진해시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통영시·고성군과 인접하면서 수려한 한려수도를 안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이 보이고, 그 건너편의 일본 대마도가 아련히 바라보인다.

지형적으로 볼 때, 거제지역의 산맥은 태백산맥계가 북쪽으로부터 이어졌고, 소백산맥계가 서남쪽에서 견내량을 건너 시래봉에서 시작되는데, 이 두 산맥이 어우러져 산과 섬을 만들었다. 태백산맥의 마지막 支脈인 진해 천장산과 소백산맥의 支脈이 벽방산에서 서로 만나 한반도 남쪽 바다로 힘차게 뻗어 나와 마치 꽃처럼만들어 놓은 섬이 거제도이다. 동으로 玉女峰, 서로는 山芳山, 남으로는 加羅山과 老子山, 북으로 大錦山이 감싸고 있고, 중앙에 鷄龍山이 하늘로 비상하는 형상을하고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여인이 치마를 두르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이라 하여 '裳郡'1)으로 불렀다고 한다.

지형적인 특징으로는 老子山(556.2m)을 주봉으로 삼고 鷄龍山(554.9m)이 남북으로 길게 산맥을 형성하여 섬을 동서 두 지역으로 가르고 있다. 주로 서북쪽으로 가로지른 계룡산과 동남으로 누운 大錦山이 주맥이 되어 중앙 협곡을 따라 넓은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로 인해 동부면·거제면·둔덕면·신현읍·연초면 등지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좁지만,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나나머지 지역은 산세가 급경사를 이루어 밭작물 재배만 가능한 정도이며, 아열대기후의 특성에 힘입어 특성작물 재배와 양봉업이나 목축업이 성행하고 있다.2)

하천의 경우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빗물이 하천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하천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鳥良川을 비롯하여 18곳의 하천이 있다. 이렇듯 섬 내의 지형은 주로 산악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은 남해안의특징인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다도해를 형성하여 본 섬 주위에는 11개의 유인도를 비롯하여 51개의 무인도서가 산재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부근해역은 청정해역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특히 동쪽 해역은 한・난류

<sup>1)</sup> 본문에 인용한 史料에 의하면, 신라 景德王 때 생긴 명칭으로, 지형적인 형상과 관련해 '치마 裳'字를 썼다.

<sup>2)</sup>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각종 어류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3)

지리적 입지상 일본과 가깝고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해와 서해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물자수송(조운관련)의 요지로서 그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항구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방어용 城・鎭・堡를 설치하여, 해상교통로에 필요한 조운・항만시설 등의 원할한 운영과 외적의 침입이나 폐해로부터 보호하였다. 특히 지세포항・구조라항 등은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의 사신이 경유하였던 항구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적인 조건이 풍랑을 피하기 좋은 항구이자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거제도의 기후는 그 입지적 요인으로 인하여(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지리적 특성) 해양성기후의 특성을 지닌다. 즉 사계절이 뚜렷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이다. 이는 해양의 영향으로 기온의 일교차 · 연교차가 적고 연중 온화하기 때문이며, 여름철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역으로 온대다우기후 지역에 속한다.(보다 세분하면 남해안형에 속한다) 따라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아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연교차는 24.2℃, 연평균 강우량은 1.727.8㎜로 다우지역이나 섬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재해는 적은 편이다.4) 연평균기온은 13.8℃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에 속하며, 최고 평균기온은 18.3℃이고, 최저 평균기온은 9.3℃이다.

거제지역의 지질형태는 선캄브리아기 암석으로 되어 있다. 선캄브리아기 변성암은 고생대와 그 뒤에 퇴적된 지층으로 덮여 있는데, 한반도의 대부분이 이런 지층 아래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을 기반으로 한 陸塊라고 한다.(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제지역은 퇴적암과 화성암 계열의 화강암층 지질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낙동강의 지맥이 연결된 사등・신현・거제・하청・장목・장승포 동부일부까지는 퇴적암 지대이고, 둔덕・남부・동부지역 일부와 일운면 지역은 화성암계열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5)

교통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육상교통으로는 1971년에 완공된 거제대교와 1999년에 개통된 신거제대교가 국도 14호선을 통해 통영·마산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마산·부산·여수 등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도 발달되어 있다. 또한 현재 공사가진행중인 거제~부산 연결도로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거제시까지 연장되면, 더욱 더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상의 면적은 400.69㎢이며, 1읍 9면 6동으로 89개의 법정리와 242개의 행정리 및 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청

<sup>3)</sup>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여서 연중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동쪽의 장승포 양지바위 끝은 한류와 난 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720**여종의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巨濟市誌』, 巨濟市誌編纂委員會, **2002**.)

<sup>4)</sup> 巨濟市誌編纂委員會, 『巨濟市誌』, 2002.

<sup>5)</sup>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소재지는 신현읍 고현리이며, 가구 수는 **67,512**호에 인구는 **195,931**명(**2006**년 **1**월 말 통계자료)이다.**6**)

# 2. 巨濟市의 考古·歷史的 背景

- 1) 巨濟市 歷史 概要
  - (1) 先史時代早日 三國時代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은 가뭄때 물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거제도내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7) 그리고 거제지역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많은 선사유적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류의 정착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8)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거제도 남서쪽에 위치한 통영시 욕지도와 그 주변 도서지역, 그리고 부산, 김해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신석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에도 지석묘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들이 구릉이나 주변 평야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적어도 신석기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 유적도 거제면 남산패총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 삼한시대 경남지역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의 해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9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그 세력이 전남해안까지 뻗쳤다는 기록뿐 아니라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으니,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세력인 가야, 신라와의 대립 및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衰落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 전투10) 이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갈화성 전투 이후 경상도 일대 포상팔국의 세력이 신라나 가야에 완전히 복속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sup>6) &</sup>lt;거제시청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조.

<sup>7)</sup> 東亞文化研究院,『거제문화유적분포지도』- 거제시-, 2005.

<sup>8)</sup> 東亞文化硏究院,『거제문화유적분포지도』- 거제시-, 2005.

<sup>9)</sup>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 즉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이름이 밝혀진 골포국(마산만)을 비롯하여, 칠포국(진동), 고사포국(고성), 사물국(사천)의 4국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개이다.

<sup>10) 『</sup>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傳 참조.

그러나 삼한시대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제지역에 대한 문헌기록은 확실 하지 않은 편이다. 다만 鵝洲洞 古墳群 외에도 延草面 德峙里에 위치하는 장터고 개 고분군과 같은 비교적 삼국시대 초기 단계로 編年되는 유적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야문화권의 다른 곳들과 함께 소국의 하나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11)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기록이다. 역 사적으로 3세기까지 한반도의 영남지방은 弁辰韓 24개 소국을 비롯한 여러 작은 정치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이들 중 몇 개의 소국이 세력을 확장하여 '백제'나 '신라', '오가야국'(혹은 육가야국)으로 통합되어 갔다. 여기에 근 거하면 당시 거제지역에는 弁辰 24국 중 하나인 '弁辰瀆盧國'이 있었던 것으로 比 定될 수 있다. "그 경계가 왜와 접하고 있다"12)라고 하여, 동래인근으로 보는 견 해도 있지만, 조선시대 茶山 丁若鏞(1762~1836)은 그의 저서『與猶堂全書』속의 <我邦疆域考> 여러 곳에서 거제지역을 瀆盧國으로 비정하고 있다. '독로'('두로'라 고도 읽는다)는 '두르다'라는 의미의 이두음으로써 신라시대의 명칭이 치마 '상 (裳)'자의 漢字를 차용한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즉, 치마를 두른 형태의 지형적 인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원의 변천 등으로 볼 때, 거제지역을 고 대 독로국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13) 이 시기 이후 통일신라까지 거제 지역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文獻上에 보이지 않는다.

## (2) 統一新羅時代

신라 法興王 19년(532)에 가락국이 신라에 통합되고, 이후 삼국을 통일 한 文武 王(661~680) 때에 瀆盧國 지역에 처음으로 '裳郡'14)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景德王이 실시한 지방관제 개편때에(9州 5小京) 지금의 명칭인 '巨濟郡'으로 개명하면서, 鵝洲縣‧溟珍縣‧南垂縣(또는 松邊縣)을 속현으로 두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거제지역의 유력한 세력이 그 독립적인 위상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지방통치구조에 편입되었으며, 결국에는 신라의 통치체제 내부로 완전히 종속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거제지역 治所는 둔덕면 거림리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sup>11)</sup> 東亞大學校博物館,『巨濟 江望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查 報告書』, 2002.

<sup>12) 『</sup>三國志』<魏書> 弁辰傳, 其瀆盧國 與倭接境.

<sup>13) 『</sup>我邦疆域考』를 살펴보면, "독로국은 지금의 巨濟府 本裳郡이다. '상'은 우리 말로 '斗婁技'여서 '독로'와 음이 비슷하다. 또 사로국은 지금의 경주이다. 김부식에 따르면 신라는 본래 '斯羅'라 불렀는데, 사라는 곧 斯盧다"라고 한 점이나, "『後漢書』에 변진이 진한의 남쪽에 있다고 했으니 변진은 진한의 남쪽 이웃이요, 독로는 곧 거제다"라고 하였던 점, 그리고 "독로는 거제다. 금관의 바다 어구건너편에 있고, 독로 남쪽으로 왜와 인접해 있으니 딴 고을이 아니다"라고 하여, 거제를 瀆盧國으로비정하고 있다.(정약용 지음・이민수 옮김, 『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sup>14) 『</sup>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十 昭聖王 一年條. 참조.

있다. 이와 함께 거제군과 세 영현에도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치소인 邑司와 함께 그 하부의 말단행정 구역에는 행정촌과 자연촌이 편재되어 있었을 것이다.15) 이후 昭聖王 元年(799)에는 菁州(지금 진주시)의 巨老縣, 즉 거제군의 아주현을 국학생의 祿邑(食邑)으로 삼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16) 당시 아주현 지역의 농업생산력 기반이 상당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배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관제는 신라말 혼란기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통일신라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나말여초의 사회변동기에는 각 지역에서 豪族勢力이 성장하여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 지역에 대한 행정ㆍ경제적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였는데, 이 시기 거제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거제지역이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음을 고려해 볼 때, 대중국ㆍ일본의 해상무역과 농업 경제력을 장악한 토착세력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타 호족세력들과 연대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 (3) 高麗·朝鮮時代

고려초기 成宗 2년(983)에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枚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으니, 둔덕면 거림리에 치소를 두고 '岐城縣'이라 개칭하여, 12枚 중의 하나인 晋州枚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顯宗 3년(1012)에 행정구역을 확대·개편하여 지금의 통영·고성인 固自縣을 통합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거제현'으로 개칭하고, 고성현을 분리하여, 각 현에 현령을 두었다. 이후元宗 12년(1271)에 왜구의 침범과 진도의 三別抄 항쟁군의 내습으로 인하여 그 땅을 잃자 주민을 육지로 옮겨 거창현의 영속인 加祚縣 등지와 진주목의 임내인永善縣에 僑寓하였다. 이어 忠烈王 때에는 管城에 병합되었다가 곧 복구하였다.17) 함편 고려시다 건계지역을 살펴보면 귀약지이가 해적과 에적이 침익이 작안되

한편 고려시대 거제지역을 살펴보면 귀양지이자 해적과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으며, 심지어는 섬을 버리기도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제도가 유명한 귀양지였었다는 사실이다.

睿宗 7년(1112) 6월에는 扶餘公 (王)燧의 유배지를 거제현으로 옮기던 도중 玄風에서 죽었던 사실이나,18) 毅宗 11년(1157)에 고향인 동래 유배지에서 戀君의 정을 표현한 <鄭瓜亭曲>의 작자 鄭敍가 거제현으로 유배지를 옮겼던 사실, 그리고 僧統 竀을 귀양 보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毅宗 24년(1170)에는 鄭仲夫 등이 '무

<sup>15)</sup> 巨濟市誌編纂委員會, 『巨濟市誌』, 2002.

<sup>16)『</sup>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十 昭聖王 一年條. 및 『嶠南誌』卷六十九 <巨濟郡>까지의 史料 참조.

<sup>17) 『</sup>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및『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巨濟縣> 참조.

<sup>18) 『</sup>高麗史』卷13, 睿宗 7年(1112) 6月 乙未條 참조.

신의 난'을 일으키자 毅宗이 단신으로 거제현으로 피해간 사실19)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유배지로서의 역할은 거제지역이 변방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고급문화, 특히 왕실과 귀족문화, 중앙의 불교와 유교문화를 수용하여 거제지역 사람들의 의식을 자각시키고,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을 것이다.20)

둘째, 해적 및 왜구의 침탈에 의한 피해가 컸다는 점이다.

仁宗 6년(1128)에 "남쪽 경계에 해적이 많이 일어남으로 御史中丞 鄭應文으로 선무사를 삼아 가서 曉諭하게 하였다"라는 기사와21) "(상략)……명진·성변·아주세 현의 해적인 佐成 등 820명이 투항하여 복속하였다……(하략)"라는 기사는 곧 거제가 12세기 초에 해적들의 주요 활동거점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元宗 12년 (1271)에 왜적의 침입으로 이 지역을 잃었다는 사실이나, 忠定王 庚寅 2년(1350)에 왜구가 고성·거제 등지에 침범하였는데 이를 격파한 사실, 그리고 이후 왜구의 출몰이 잦아진 기록 등이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통의 거점인 거제도는 고려말 禑王 때까지 황폐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은 高宗 10년(1223)부터 恭讓王 4년(1392)까지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禑王·恭讓王 때에 총 493회로써 침략빈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침략 대상지역도 주로 남해안의삼남지방을 비롯하여 평안·함경지역까지 전국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까지 횡행하였다. 그리고 거제지역은 13세기 이후 고려가 망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총 5차례나 왜구의 침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고려 말 거제인근 왜구의 침범사려	立	11	고려	만	거제이근	애구의	친번사권
--------------------------	---	----	----	---	------	-----	------

시 기	침입사례	비고
高宗 13년(1226) 정월	경상도 연해의 州郡을 침략	거제현령 陳龍甲이 격퇴
忠定王 2년(1350) 2월	고성・거제・죽말 등 침입	왜구의 본격적 침입이 이때부 터 시작되었다고 기록
恭愍王 10년(1361) 4월	고성・울주・거제에 침입	
恭愍王 18년(1369) 7월	거제·남해현	귀화한 왜인들이 배반하여 본 국으로 돌아감
昌王 8월(1389)	거제도에 침입	鎭撫 韓元哲이 적선 <b>1</b> 척 노획, <b>18</b> 명 참살

조선시대에 와서는 초기에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 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개편 속에서 초기인 太宗 14년(1414)

<sup>19) 『</sup>高麗史』卷十九 <世家>第十九 毅宗三 庚寅條. 참조.

<sup>20)</sup>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誌』, 2002.

<sup>21) 『</sup>高麗史』卷十五 <世家>第十五 仁宗一 六年 戊申條. 참조.

에 거창현과 합하여 '濟昌縣'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에(1415) 다시 '거제현'으로 환원하였다. 世宗 元年(1419) 上將軍 李從茂가 대마도의 왜구를 정벌하기 위하여 거제도의 見乃梁과 烏壤城에 군사를 거느리고 원정하였으며,22) 世宗 4년(1422)에이르러 왜구의 침입이 종식되고 안정을 취하게 되자, 거제도의 옛 속현인 명진·아주·송변과 河淸·竹吐·古丁 등 3부곡의 옛 고장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한편 知縣事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고, 치소는 沙等城에 두었다. 그리고 이듬해인세종 5년(1423) 고현성의 축성을 명하였으며, '거제현'으로 고쳤다. 世祖 11년(1465)에는 거제현 오아포(가배량)에 우수영을 두었으며, 成宗 元年(1470)에 거제현이 해상방어의 요충지이므로 옥포·지세포·조라포·오아포(가배량)·구영등·장목포에 '6鎭'과 구율포(율천)에 '堡'를 두었는데 이를 '巨濟 7鎭'이라 한다. 이후成宗 20년(1489)에 거제현이 남해안의 중요거점임을 인식하여 '거제부'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中宗 14년(1519)에 경상우도의 '거제현'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거제지역과 그 연안해는 왜군과의 치열한 접전장이 되었다. 이때 거제읍성이 왜군에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거제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 수군의 합동작전을 최초로 수행하여 승리하였던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며, 반대로 삼도수군이 궤멸했던 칠천량 해전이 있었던 곳이기도하다.23) 또한 왜군이 거제도를 점령하여 조선수군의 반격에 대비해 성을 쌓기도하였다.24) 顯宗 5년(1664)에 이르러 임진왜란으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한 거제읍성을 폐지하고, 縣衙를 옛 명진현의 서부면으로 이전하고 '邑內面'이라 하였다. 이때 거제읍성은 '고현성'으로, 거제읍기는 '고현면'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肅宗 33년 (1707)에 '都護府'로 승격되었고, 英祖 45년(1769)에 이르러 거제도호부에는 6面에屬地 4面이 있었고, 그 면의 하부에 83坊里가 있었다.

#### (4) 近·現代

구한말부터 서양세력의 동양진출 및 일본의 침탈로 인한 역사적 격변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체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高宗 32년 (1895) 지방관제의 개정으로 '23府制'를 실시하였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 (1896), 다시 '13道制'의 실시에 따라 비로소 '경상남도 거제군'으로 되었다. 그리고 光武 4년(1900) '鎭南郡'을 설치하고 거제군 둔덕면에서 한산면을 분리, 편입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합·개편에 따라 거제군은 육지의 용

<sup>22)</sup> 馬山浦에서 출발하였다는 이설도 있다.

<sup>23)</sup> 경상우수영은 처음에 薺浦였다가 뒷날에 거제 烏兒浦의 加背梁 그리고 固城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여기서 거제는 곧 경상우수영 관할이며, 남방지역을 방위하는 최전방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의 우수영이라면 가배량을 말하기도 한다.(『巨濟市誌編集委員會 2002.)

<sup>24)</sup> 임진왜란 당시 거제도에는 왜적이 5개의 왜성을 쌓았다고 한다.(본문 <성곽과 봉수>의 내용을 참조)

남군, 진남군과 폐합하여 통영군에 예속되어 향후 **39**년간 附庸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군 단위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때 거제지역은 외포면이 장목면에 통합되는 것 외에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변화는 없었다.**25**)

1953년 거제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민이 몰려들고, 포로수용소가 생김으로써 인구 40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서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통영에서 분리되었다.(39년 만에 장승포 임시청사에서 '거제군'으로 복군·개청하였다)이후 1971년 거제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육지와 연결되었으며, 1975년에는 장목면의 저도와 망와도가 진해시에 편입되었다. 1979년에 신현면을 읍으로 승격함으로써 2분 9面이 되었다가, 1989년 장승포읍이 거제군에서 분리되어 장승포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95년 도농통합 때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 지금의 거제시가 되었다.

# 2) 거제시의 역사 文獻資料

#### 史料 『 』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年

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가라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이벌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여명을 잡아 돌아왔다.26)

#### 史料 『 『 『 新羅本紀 昭聖王 年

元年(799) 봄 3월, 청주의 巨老縣을 국학생의 禄邑으로 정하였다.27)

#### 史料 『 』 『 雑誌 地理

거제군은 文武王이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했던 곳으로 바다에 있는 섬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鵝洲縣은 원래 巨老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溟珍縣은 원래 買珍伊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南垂縣은 원래 松邊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은 다시 옛 이름으로 회복되었다.28)

- 25)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 **26)**『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二 柰解尼師今 十四年條.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 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 27) 『三國史記』卷十 <新羅本紀>十 昭聖王 一年條. 元年 春三月 以菁州巨老縣 爲學生祿邑.
- 28) 『三國史記』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

#### 史料 『 』 》 列傳 勿稽子

…… 그 뒤 **3**년이 지나서 骨浦, 柴浦, 古史浦 등 **3**국이 竭火城을 공격하였는데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였다. **3**국의 군대는 크게 패하였다……29)

#### 史料 『 」 』 世家 第 仁宗 六年 戊申

仁宗 **6**年 戊申年**(1128)** 夏四月 丁巳, 南界에 해적이 봉기하였다. 어사중승 정응문을 선무사로 임명하여 현지에 가서 그들을 타이르게 하였다.**30**)

# 

庚寅年(1170) 己卯, 왕은 홀몸으로 떠나서 거제현으로 피해 갔으며, 태자는 珍島縣으로 추방되었다. 이날 정중부·이의방·이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 의 아우인 翼陽公 皓를 왕위에 앉혔다.31)

#### 史料 『 』 』 志 第 地理

거제현은 원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신라 文武王이 비로소 이곳에 상군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거제군으로 고쳤다. 顯宗 9년(1018)에 현령을 두었고 元宗 12년(1271)에 왜적의 침입으로 이 지역을 잃었으므로 백성들이 거창현의 가조현에 붙어 살았으며, 忠烈王 때 管城에 합쳤다가 얼마 후 원래대로고쳤다. 比加島, 助音島 등이 있으며 소속 현이 3개 있다.

아주현은 원래 신라의 巨老縣으로서 거제도 안에 있는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 거제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불렀다. 송변현은 원래 신라의 松邊縣으로서 역시 거제도 안에 있는데 景德王은 南垂로 고쳐서 거제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다시 옛 명칭으로 고쳐서 그대로 본 현에 소속시켰다. 명진현은 원래 신라의 買珍伊縣으로서 역시 거제도 안에 있는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거제군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다.32)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 **29)**『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 ......後三年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人 來征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 30) 『高麗史』卷十五 <世家>第十五 仁宗一 六年 戊申條. 六年 夏四月 丁巳 南界海賊多起 以御史中丞鄭應文 爲宣撫使 往諭之.
- 31)『高麗史』卷十九 <世家>第十九 毅宗三 庚寅條. 己卯 王 單騎遜于巨濟縣 放太子于珍島縣 是日 仲夫義方高登 領兵 迎王弟翼陽公皓即位.
- 32) 『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巨濟縣 本海中島 新羅文武王 初置裳郡 景德王改為巨濟郡 顯宗九年置縣 元宗十二年 因倭失土 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併于管城 尋復舊 有比加助音島 屬三縣 鵝洲縣 本新羅巨老縣 在巨濟島 景德王改今名 為巨濟郡領縣 高麗因之 松邊縣 本新羅松邊縣 亦在巨

#### 史料 『 」 』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巨濟縣

거제현은 원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신라 文武王이 처음에 상군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거제군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 戊午年(1018)에 현령을 두었고, 元宗 12년 辛未年(1271)에 왜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백성들이) 거창 가조현에 붙어 살았다. 본조 太宗 甲午年 거창현과 합쳐서 濟昌縣이라 불렀다. 乙未年에 다시 분리해 거창현으로 되었다. 今上 4년 壬寅年(1422)에 다시 옛 섬으로 환원시켜 4품 이상 知縣事를 파견하였다.

아주현은 원래 신라의 巨老縣으로서 景德王 때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으며, 송변현은 景德王 때 南垂로 고쳐 모두 거제군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남수는 다시 옛 명칭으로 고치고 그대로 任內로 두었다…(중략)…호구는 1백 5십 3가구이며, 인구는 4백 2십 3명이다……(하략).33)

#### 史料 『 巨濟縣

동쪽으로 玉浦까지 **20**리이고, 서쪽으로 見乃梁까지 **37**리이며, 固城縣 경계까지는 물길로 **3**리이다. 남쪽으로 塔串까지 **41**리이고, 북쪽으로 永登浦까지 **5** 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천 **44**리이다.

[建置沿革] 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 신라 文武王이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현령을 두었고, 元宗 12년(1271)에 왜구 때문에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거창현의 속현이었던 加祚縣에 우거하였다. 忠烈王 때에 管城과 병합하였다가 곧 혁과하였다. 본조太宗 14년(1414)에는 거창과 병합하여 濟昌縣이라 부르다가 얼마 뒤에 또 파했다. 世宗 14년(1422) 옛 섬으로 환원하여 知縣事로 만들었으며, 그 뒤에 현령으로 고쳤다.

[郡名]상군・기성(관풍안에 있다).

[形勝] 瀛海가 浩洋하다…(중략)…對馬島와 서로 바라보인다.

[城郭] 읍성: 石築이며, 둘레는 **3**천 **38**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성 안에 샘물 세 개와 못 둘이 있다.

[關防] 右道水軍節度使營: 현 남쪽 **37**리 지점에 있다. 석성이 있는데 둘레는 **2**천 **6**백 **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다. 성 안에 샘물 하나, 못 하나가 있다. 산달포에서 오아포로 옮겼다.

[烽燧] 鷄龍山烽燧 : 남쪽으로 加羅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고성현 彌勒山에 응한다. 加羅山烽燧 : 북쪽으로 계룡산에 응한다.

濟島 景德王改名南垂 爲巨濟郡領縣 高麗復舊名 仍屬 溟珍縣 本新羅買珍伊縣 亦在巨濟島 景德王改今名 爲巨濟郡領縣 高麗因之.

<sup>33) 『</sup>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尚道 晋州牧 巨濟縣.

巨濟縣 本海中島 新羅文武王初置裳郡 景德王改爲巨濟郡 高麗顯宗戊午 置縣令官 元宗十二年辛未 因倭失土 僑寓居昌之加祚縣 本朝 太宗甲午 合于居昌號濟昌縣 乙未復析爲居昌縣 今上四年壬寅 復還舊島 以四品以上 充知縣事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今名 松邊縣 景德王 改名南垂 皆爲巨濟縣領縣 高麗 改南垂復舊名 仍爲任內…(중략)…戶一百五十三 口四百二十三……(하략).

[學校] 鄕校: 현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祠廟] 사직단: 현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성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여단: 부 북쪽에 있다.34)

#### 史料 『 』 』 ▶ 輿地考 郡縣沿革

…… [晋州府] 진주·고성·진해·사천·곤양·남해·단성·산청·하동·거창·안의·함양·합천·초계·삼가·의령·칠원·함안·창원·웅천·김해의 **21**郡을 관할하였다.……35)

#### 史料 『 』 』 東地考 郡縣沿革

경상도는 본래 辰國의 땅인데, 뒤에 북쪽은 辰韓이 되고 남쪽은 弁韓이 되었다…(중략)…河東・巨濟・陜川・咸陽…(중략)…우도에 속하였다.……36)

34)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 <巨濟縣>.

巨濟縣: 東至玉浦二十里 西至見乃梁三十七里 至固城縣界水路三里 南至塔串四十一里 北至永登浦五十里 距京都一千四十四里.

[建置沿革] 本海中島 新羅文武王 初置裳郡 景德王改今名 高麗顯宗置縣令 元宗十二年 因倭失土僑寓居昌縣之加祚縣 忠烈王時 倂于管城 尋罷 本朝 太宗十四年 倂于居昌號濟昌縣 又尋罷 世宗 十四年 復還舊島 爲知縣事 後改縣令.

[郡名] 裳郡 岐城(觀風案).

[形勝] 瀛海浩洋…(중략)…與對馬島相望.

[城郭] 邑城: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

[關防] 右道水軍節度使營: 在縣 南三十七里 有石城 周二千六百二十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池 自山 達浦移于烏兒浦.

「烽隊」鷄龍山烽隊: 南應加羅山 西應固城縣彌勒山 加羅山烽隊: 北應鷄龍山.

[學校] 鄉校: 在縣西一里.

[祠廟] 社稷增: 在縣西 文廟: 在鄉校 城隍祠: 在城南一里 厲增: 在縣北.

이 외에도 山川에 거제시 인근의 섬과 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영·보·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을 살펴보면, "[방면]邑內는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40리이다. 古縣內는 북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40리이다. 屯德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30리이다. 沙等은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40리이다. 迎草는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50리이다. 河淸은 북쪽으로 처음이 40리, 끝이 70리이다. 원래는 하청부곡이다. 古丁部曲은 옛날 거제현 때의 治所이다. 竹吐部曲은 동쪽으로 25리이다. 未近鄉은 족토의 동쪽에 있다. 德海鄉은 동북쪽으로 45리이다. 鍊汀莊은 동북쪽으로 30리이다. [영아] 혁폐 : 右水營은 본래 熊川의 薺浦에 두었는데, 후에 창원의 合浦로 옮겼다가 다시 거제의 山達浦로 옮겼으며, 다시 塔浦와 烏兒浦로 옮겼는데, 宣祖 26년(1593)에 三道統制營을 겸하게 하였다가, 宣祖 37년(1604)에 고성의 龍頭浦로 옮기면서 오아포는 行營으로 삼았는데 후에 혁폐하였다. 고성 편에 있다. [진보] 영등포진·조라포진·카배량진·율포보에 대한 언급과 이 당시 이미 혁폐된 진보인 영등포구진·조라포구진·옥포구진·지세포구진·율포구보·오양폐보·소비포폐보 등에 대한 업급이 수록되어 있다. [봉수] 登山·南望은 모두 가배량에 있다. 옥림산은 옥포에 있다. 訥逸串은 지세포에 있다. 柯乙串은율포에 있다"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35)『增補文獻備考』卷十六 <輿地考>四 郡縣沿革二.

······[晋州府] 諸晋州 固城 鎮海 泗川 昆陽 南海 丹城 山清 河東 居昌 安義 咸陽 陝川 草溪 三嘉宜寧 漆原 咸安 昌原 熊川 金海 二十一郡·····.

36) 『增補文獻備考』卷十六 <輿地考>五 郡縣沿革三.

慶尚道 本辰地 後北辰韓南爲弁韓…(중략)…河東 巨濟 陝川 咸陽…(중략)…屬右道.

【亞2】新羅:義安郡 本屈自郡.

高麗:義安郡:顯宗入金州還復置 忠烈王 改義昌君.

朝鮮:太宗朝 合義昌會原 改今名 顯宗二年降等 十一年還屬 今上三十二年 改爲郡.

#### [표 2] 거제시의 문헌기록

진・변한	기록 없음
新羅	<巨濟郡> : 본래 상군으로 섬이다. 文武王 초에 상군을 설치하고, 景德王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高麗	<巨濟縣> : 顯宗 때 현으로 삼았고, 元宗 때 왜구로 인하여 거창의 가조에 임시로 寓居하였는데 忠烈王 때 管城에 편입시켰다가 다시 설치하였다.
朝鮮	<巨濟郡>: 太宗 14년(1414)에 거창과 병합하였다가 곧 혁파하고 世宗 4년(1422)에 옛 섬으로 돌아갔는데, 顯宗 5년(1664)에 또 명진폐현 서 쪽 3리로 옮겼으며, 肅宗 37년(1711)에 부로 승격시키고, 高宗 32년 (1895)에 군으로 고쳤다.

#### 史料 『 』 』 輿地考 關防 城郭

[邑城] 동북쪽 20리에 있는데,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3천 38척이고 높이가 13척이다. 안에 우물이 1곳, 못이 1곳 있다. (補) 端宗 초에 贊成 鄭苯이 쌓았다. 지금의 폐성이다…(중략)… [右水軍節度使營城] 남쪽 20리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가 2천 6백 20척이고, 높이가 13척이다. 山獺浦에서 烏兒浦로 옮겼는데, 宣祖 37년(1604)에 또 固城縣의 頭龍浦로 옮기고, 加背萬戶를 설치하였다…….37)

#### 史料 『 』 『 』 『集 卷 地理典故 州郡

거제: 城이 있다.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때 裳郡이라 하다가 거제로고치고, 뒤에 관성에 합하였다가 곧 폐지하였다. 太宗 14년 甲午年(1414)에 폐읍하고 거창에 합하여 濟昌縣이라고 부르다가 또 곧 폐지하였다. 世宗 14년 壬子(1432)에 다시 현을 두었다. 肅宗 37년 辛卯(1711)에 府로 올렸다. 岐城이라고도 한다. 6面, 서울과의 거리는 1천 4십 4리이다.

鵝洲는 폐현이며(신라 때의 거로현이다), 松邊도 폐현이다.(신라 때 남수라고쳤다) 溟珍도 폐현이다.(신라 때의 매진이현이다. 定宗 때 江城縣과 합하여珍城이라고 일컫었다.38)

<sup>37) 『</sup>增補文獻備考』卷二十七 <輿地考>十五 關防三 城郭三.

<sup>[</sup>邑城] 在東北二十里 石築 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井一 池一 (補) 端宗初 贊成鄭苯築 今廢… (중략)…右水軍節度使營城 在南二十里 石築 周二千六百二十尺 高三十尺 自山獺浦移于烏兒浦 宣祖三十七年 又移于固城頭龍浦 因置加背萬戶…….

이 외에도 여기에 나오는 성들의 명칭을 나열해 보면, 고읍성·둔덕기성·영등포성·옥포성·조라 포성·지세포성·율포성·오양성·구가배량성·구소비포성·구장목포성 등이 있다.

<sup>38) 『</sup>燃藜室記述』 別集 卷十六 <地理典故> 州郡.

巨濟 有城 海島 新羅裳郡 改巨濟 後倂于管城 尋罷 太宗甲午 革倂于居昌號濟昌縣 又尋罷 世宗壬子復置縣 肅宗辛卯 陞府 岐城 六面 距京一千四十四里 鵝洲廢縣(新羅巨老縣) 松邊廢縣(新羅改 南垂) 溟珍廢縣(新羅買珍伊縣 定宗朝 合于江城縣稱珍城).

#### 史料 『 』 』 ・ 🐧 廢山城 📗

助羅浦堡 결, 만호.

知世浦堡: 현의 동쪽 29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만호, 일본에 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곳에서 순풍을 기다렸다.

永登浦堡: 현의 북쪽 49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만호.

加背梁堡: 옛날에는 固城에 속하였으며, 권관을 두었다. 만호, 옛날에는 都 萬戶가 있었는데, 뒤에 玉浦로 옮겼다. 成宗 **2**년(**1471**)에 다시 석성을 쌓았다.

玉浦堡: 현의 동쪽 19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만호.

所非浦堡: 결, 권관.

栗浦堡 : 현의 동쪽 **33**리에 있는데, 석성이다. 권관. 屯德岐城 : 현의 서쪽 **37**리에 있는데, 석축이다.**39**)

#### 

[沿革] 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文武王이 처음에 상군을 설치하였 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고려 顯宗 때에 현령을 설치하였고. 元 宗 12년(1271)에 병란(왜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땅을 잃고 거창현의 가조 현에 僑寓하였다. 忠烈王 때 관성에 병합하였다가 곧 혁파하였다. 李朝 太宗 14년(1414) 거창과 병합하여 제창현이라 부르다가 또 혁파하였다. 世宗 14년 (1432)에 다시 옛 섬으로 화원하고 지현사를 두었고, 뒤에 다시 현령으로 고 쳤다. (屬縣) 鵝洲縣 : 본 섬(내)에 있다. 현으로부터 동쪽으로 16리 떨어져 있 다. 본래 신라 거로현으로 菁州(지금의 진주시)에 속했다가 昭聖王이 國學生의 녹읍으로 만들었다. 景德王에 이르러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내속시켰다. 송 변현 : 역시 본 섬(내)에 있다. 신라 景德王이 남수로 고치고 내속시켰다. 고려 때 다시 옛 이름으로 되살렸고 역시 본 섬에 속하게 했다. 현으로부터 남쪽으 로 45리에 있다. 명진현 : 본래 신라의 매진이현으로 역시 본 섬(내)에 있다.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로 고치고 내속시켰다. 고려에서도 그대로 하였다. 후 에 감무를 설치하였다. 元宗朝에 왜구를 피하여 육지로 나와 진주 영선현에 僑寓하였다. 이조 定宗 때 강성현과 합쳐 진성으로 칭하였고, 世宗朝에 다시 내속시켰다. 현으로부터 남쪽으로 15리에 있다. 顯宗 5년(1664)에 통제사 오 중주와 정홍좌, 어사 이이만, 그리고 현령 변진영이 거제현이 남방의 제일 중

<sup>39) 『</sup>燃藜室記述』 別集 卷十七 <邊圉典故> 鎭堡 廢山城.

助羅浦堡 缺 萬戶.

知世浦堡 縣東二十九里 石城 萬戶 本國人 往日本者 於此候風。

永登浦堡 縣北四十九里 石城 萬戶.

加背梁堡 舊屬固城 差權管 萬戶 古有都萬戶 後移玉浦 成宗二年 復築石城.

玉浦堡 縣東十九里 石城 萬戶.

所非浦堡 缺 權管.

栗浦堡 縣東三十三里 石城 權管.

屯德岐城 縣西三十七里 石築.

요한 關門임을 계청하여 도호부로 만들었으며, 高宗 建陽 元年(1896)에 고쳐 군으로 만들고, 大正 3년(1914)에 통영군과 합쳤다. 군의 명칭은 상군·기성·거제라고 하였다.40)

이상의 사료들에서 드러나듯이 거제 일대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남해안의 관문으로, 여기에 발췌한 史料들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변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지명과 역사적 변천과정,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제시를 비롯한 인근 일대의 地名變化를 알 수 있다.

역사상으로 比定되거나 나타나고 있는 거제시의 명칭들은, 삼한시대의 '弁辰瀆盧國'을 시작으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裳郡・岐城・巨濟'로 불리웠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居昌과 합쳐져 한때 '濟昌'이라고도 불렀다.

둘째, 거제시를 포함한 인근 일대의 행정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거제'라는 지명이 붙은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구한말까지 '거제 현, 기성현, 거제군, 거제부'로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큰 맥락으로 보면, 거제 군(신라 景德王)→岐城縣(고려 成宗)→濟昌縣(조선 太宗)→거제현(조선 太宗)→거제부(조선 成宗)→경상우도 거제현(조선 中宗)→도호부(조선 肅宗)→경상남도 거제군 (조선 高宗)으로 바뀌어 왔다. 또한 거제의 屬縣들인 鵝洲縣・溟珍縣・南垂縣(松邊縣)들의 폐합과정, 그리고 타 郡・縣과의 僑寓관계 등을 알 수 있다.

셋째, 거제시의 山川과 境界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거제도와 접하고 있는 인근 郡縣들과의 경계 및 거리, 서울과의 거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일본의 대마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경관과 자연산천, 당시의 호구와 인구, 일대의 관방시설, 기타 유적들에 대한 사실들도 언급하고 있다.

넷째, 거제시의 역사적 특수성을 알 수 있다.

史料들을 살펴보면, 방어의 개념을 지닌 關防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제도가 우리나라 남단 바닷가에 위치한 섬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중국·일본까지 포함하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이자, 조운이 운영되

[郡名] 裳郡 岐城(觀風案) 巨濟.

<sup>40)『</sup>嶠南誌』卷六十九 <巨濟郡>.

<sup>[</sup>沿革] 本海中島 新羅文武王初裳郡 景德王改今 高麗顯宗置縣令 元宗十二年 因兵亂失土 僑寓居昌縣 之加祚縣 忠烈王併于管城尋罷 李朝太宗十四年 併于居昌號濟昌縣 又尋罷 世宗十四年 復還舊島爲知縣 事後改縣令. (屬縣) 鵝洲縣: 在本島內 距縣東十六里 本新羅居老縣 屬于菁州 昭聖王爲學生祿邑 至景德王改今名來屬. 松邊縣: 亦在本島 新羅景德王改名 南垂來屬 高麗復舊名仍屬 距縣南四十五里. 溟珍縣: 本新羅買珍伊縣 亦在本島 景德王改今名來屬 高麗因之 後置監務 元宗朝 避倭出陸僑寓晋州永善縣 李朝定宗合于江城縣 稱珍城 世宗朝復來屬 距縣南十五里. 顯宗五年 統制使吳重周鄭弘佐 御史李頤晚 縣令邊晋英 以爲南方重關並啓請 遂都護府 高宗建陽元年 改爲郡 大正三年 合于統營郡.

던 곳으로 자연스럽게 항만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갖추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왜구들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였으며 (특히 고려 말), 심지어 섬을 버리고 육지에 나와 다른 縣에 붙어 살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축성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관방시설(대표적인 것이 '巨濟 7鎭'이다)을 갖추었다는 점이 이지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면이다. 또 다른 특수성은 유배지로서 자주 이용되었던 점으로, 중앙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변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문화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중앙의 문화가 이지역으로 유입되는 한 과정이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Ⅲ. 調査內容

# 1. 조사지역 개관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금번 조사는 '거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및 하청면 석포리산47-4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147,533㎡(약 44,628평)이다. 이 지역을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거제시 관할에 포함되는 면 단위 행정구역명 전승관계 및 변천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한 다음, 조사지역의 자연·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연초면과 하청면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서부터 찾을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삼국을 통일한 文武王(661~680)은 삼한시대 瀆盧國이었던 곳에 처음으로 '裳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 16년(757)에 '巨濟郡'으로 개명하면서 鵝洲縣・溟珍縣・南垂縣(또는 松邊縣)을 속현으로 삼았는데, 이 때 연초면은 '竹土部曲', 하청면은 '河淸部曲'으로 개편되어 아주현 관할로 예속되었다.41) 이 행정체제는 고려시대까지 지속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面단위로 개편되었는데, 서로 인접하고 있어 역사적 행정변화들이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두고 조사지역을 나누어 인문・자연・역사적 환경 및 전승지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sup>41)</sup>** 『興地圖書』<慶尚道- 金海鎭管巨濟府> 古蹟條에 의하면, "鵝洲廢縣은 府의 동쪽으로 **20**리 쯤 떨어져 있으며…(중략)…河淸部曲은 府의 동북쪽으로 **15**리 쯤 덜어져 있고…(중략)…竹土部曲은 府의 동북쪽으로 **30**여 리 쯤 덜어져 있다……(하략)"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sup>(</sup>상략)……延草面 烏飛里 汗內里 烟沙里 茶貢里 竹土里 德峙里 梨木里 明洞里 松亭里 泉谷里……(하략).

# 1) 延草面 概觀

延草面은 거제도의 동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삼면이 육지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바다와 접하고 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대금산·율천산·남궁산 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쪽이 서쪽보다 높다. 하천은 연초천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面의 중앙을 흐르고 있으며, 연초천 유역에 비옥한 연초평야가 펼쳐져 있고, 상류의 연초호로부터 관개수로를 공급 받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제도내 여러 가지 대단위 공익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신현, 옥포, 하청, 장목방면을 연계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향후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행정구역상전체면적은 40.4k㎡이며, 면소재지인 죽토리를 포함한 10개 법정리와 26개 행정리, 54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2,923가구에 인구는 7,870명(2006년 통계자료)이다.42)

역사적으로 延草面 지역은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 당시, 鵝洲縣에 속하였던 '竹土部曲'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元宗 12년(1271)에는 거 제 지역이 왜구의 침입으로 피폐해지자, 당시 居昌縣에 속한 加祚縣으로 피난하게 되었으며, 명진현은 진주목 영선현으로 피난하였다. 조선이 성립되고 안정을 찾은 世宗朝에 이르러 다시 復歸하였으며, 同王 5년(1423), 古縣城을 축성하고 沙等城 으로부터 郡衙를 옮기고 7面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지형적 위치가 거제현 동북쪽 중앙지역에 해당하며, 縣令을 동쪽(또는 東側)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권농의 지 대'라 하여 '맞을 연(延)'과 '풀 초(草)'를 합성하여 同王 14년(1432)에 지금의 명 칭으로 개칭하였다.('烟沙'의 명칭을 따랐다는 설도 있다) 이후 행정체제에 이렇다 할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조선후기 英祖 45년(1769), 坊里개편을 통하여 竹土 등 12坊을 관할하였고, 조선말기 高宗 26년(1889)에 里制改編을 통하여 19里를 관할하였으며, 同王 32년(1895)에 外浦面이 신설되어 利勿島, 外浦, 德浦里를 편 입하는 등 18里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연초면이 統營郡에 통합되어 10개 법정리를 관할하였다. 이 때 개편된 행정구역들은『嶠南誌』<統營郡> 邑面 町里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사지역인 汗內里를 비롯한 연초면 관할 의 10개 里가 나타나 있다.43)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 部落區制의 실시로 汗內 를 포함한 25개 행정리가 되었다. 해방이 되고 거제군이 복구되던, 1953년 통영 군에서 분리되어 비로소 '거제군 연초면'이 되었다가, 1995년에 도농통페합을 거 쳐 지금의 연초면으로 되었다.

<sup>42)</sup> 거제시청 <연초면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sup>43)『</sup>嶠南誌』卷之六十八 <統營郡> 邑面町里條. (상략)……延草面 烏飛里 汗內里 烟沙里 茶貢里 竹土里 德峙里 梨木里 明洞里 松亭里 泉谷里……(하 략).

# 2) 河清面 概觀

河淸面은 거제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과 서쪽은 바다(內海)와 접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연초면과 접하고 있다. 평야는 작은 편이나 남쪽과 서쪽의 앵산과 용등산에서 시작되는 작은 하천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면서 하천과 하구에 작지만 비옥한 해안평야가 발달하여 경지규모에 비해 농작물의 생산은 많은편이며, 특산물 중 칠천도의 옥녀봉과 하청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孟宗竹筍'은 전국 생산량의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29.7㎢이며, 면소재지인 하청리를 포함한 8개 법정리와 26개 행정리, 49개 자연마을을 비롯한유인도 2곳과 무인도 6개를 관할하고 있다. 세대수는 1,953가구에 인구는 4,788 명(2006년 통계자료)이다.44)

河淸面 역시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에 鵝洲縣의 하청과 장목지역에 두었던 지방 하부행정인 '河淸部曲'이었다. 고려시대는 연초면과 마찬가지로 왜구의 침입 으로 섬을 버리고 육지로(거창) 피난하게 되었다가, 조선 世宗 5년(1423) 古縣城 을 축성하고 沙等城으로부터 郡衙를 옮기고 7面이 설치되면서, 이 중 하나인 '河 淸面'으로 개편되어 권농관의 집정을 받았다. 이후 행정체제에 이렇다 할 큰 변화 를 보이지 않다가, 조선후기 英祖 45년(1769), 坊里개편으로 長木, 猪島 등 16坊 을 관할하였고, 조선말기 高宗 26년(1889)에 里制改編으로 13개 里로 통합되었으 며, 同王 32년(1895)에 24里로 개편되었다. 대한제국 隆熙 3년(1909)에 外浦面을 폐지하고 長木面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17개 里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5 년 연초면과 마찬가지로 統營郡에 통합되어 8개 里로 개편되었다. 이 때 개편된 행정구역들은『嶠南誌』<統營郡> 邑面町里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사 지역인 石浦里와 德谷里를 비롯한 하청면 관할의 8개 里가 나타나 있다.45) 일제강 점기 말기인 1942년 部落區制의 실시로 石浦里를 포함한 26개 행정리가 되었다. 해방이 되고 거제군이 복구되던, 1953년 통영군에서 분리되어 비로소 '거제군 하 청면'이 되었으며, 1977년 七川出張所가 설치되고, 1995년에 도농통페합을 거쳐 지금의 하청면으로 자리 잡았다.

#### 3)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조사대상지역 주변에서 확인된 선사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중촌지석묘군, 한 내리지석묘군, 한곡지석묘군, 도론골지석묘, 대촌지석묘, 덕치리지석묘군, 죽토삼거

<sup>44)</sup> 거제시청 <하청면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sup>45)『</sup>嶠南誌』卷之六十八 <統營郡> 邑面町里條. (상략)……河清面 河清里 柳溪里 德谷里 實田里 石浦里 於溫里 蓮龜里 大谷里……(하략).

리지석묘군, 사환지석묘, 와항지석묘, 하청리지석묘군, 중리지석묘군 및 무문토기 산포지, 창동유물산포지, 죽동지석묘상석산지 등이 알려져 있으며, 三國時代의 유 적으로는 죽토삼거리고분군, 장터고개고분군, 동리고분군 등의 분묘유적이 있다. 또한 하청북사지와 정수사지 부도, 하청성지 등의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의 문화 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 (1) 汗內里 支石墓群

延草面 汗內里 신전마을 일대에 분포한다. 한내지방공단이 있는 곳에서 河淸面 방향으로 1km를 가면 우측으로 한내리 신전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동쪽과 북쪽 경작지에 6기의 支石墓가 분포한다. 지석묘는 20~150m의 거리를 두고 남북방향으로 열을 이루며 분포해 있다. 지석묘의 장축은 남북방향이 3기이고 동서방향이 3기이며, 평면형태는 長方形 2기, 楕圓形 1기, 不定形이 3기이다. 上石의 규모는 길이 150~250cm, 너비 90~200cm, 높이(두께) 20~170cm 정도이다. 이 중 2기의 지석묘 아래에는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열과 석재가 확인된다.

#### (2) 汗谷 支石墓群

延草面 汗內里 한곡마을 일대에 분포한다. 한내지방공단의 동쪽 경작지 가운데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묘지의 남쪽 가장자리 약간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곳에 2기의 支石墓가 분포한다. 지석묘가 있는 지역은 해안과는 약 300m가 떨어져 있으며, 지석묘 2기는 0.5m의 거리를 두고 거의 연접해 있다. 지석묘의 장축방향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이 각 1기이며, 평면형태는 長方形과 梯形이 각 1기이다. 上石은 길이 200~270cm, 너비 130~190cm, 높이(두께) 80~140cm 정도이다.

## (3) 中村 支石墓群

延草面 烏飛里 중촌마을 104-1번지 일대에 분포한다. 중촌마을에 위치한 오비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중촌마을회관 서쪽 약 130m 지점의 도로 왼쪽에 支石墓 4 기가 분포해 있다. 지석묘 4기가 위치해 있는 곳은 그 범위가 20×20m 정도의 철재 울타리가 돌려져 있는 묘지내인데 지석묘는 封墳을 가운데에 두고 마름모꼴처럼 배치되어 있다. 지석묘의 장축은 1기만 남북방향이고 나머지 3기는 동서방향이며, 평면형태는 長方形 1기, 方形 2기, 楕圓形이 1기이다. 上石의 규모는 길이 160~240cm, 너비 100~150cm, 높이(두께) 40~90cm 정도이다. 이 중 2기의 上石에는 직경 5cm 내외의 聖血이 새개져 있다. 한편 가장 북쪽에 있는 지석묘는

묘지의 서쪽 단애면에 걸쳐져 있는데 상석의 하부에는 埋葬主體部의 蓋石과 石槨 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 (4) 竹土三距離 支石墓群

延草面 竹土里 三距離마을에 있는 竹土三距離支石墓群은 竹土 三距離古墳群이 위치한 능선의 남쪽 경사면 말단부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죽토삼거리에서 구 국도를 따라 장승포 방향으로 50m 정도 가면 연초중앙교회 입구가 나오는데 이곳의 좌측 언덕에 해당된다. 支石墓는 도로와 나란하게 2기가 동-서 방향으로 분포해 있는데 북쪽은 경사면을 절토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쪽에 있는 지석묘의 上石 하부에는 支石으로 판단되는 괴석 1개가 확인된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과 남북방향이 각 1기이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과 말각장방형이 각 1기이다. 상석의 규모는 길이 190~270cm, 너비 140~190cm, 높이(두께) 50~60cm 정도이다.

# (5) 竹土三距離 古墳群

고분은 延草面 竹土里의 삼거리 뒷산에 분포해 있다. 이곳은 해발 **270.7m**의 하송 뒷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이 죽토삼거리에서 낮은 산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야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古墳群이 형성되어 있고 소량의 硬質土器片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숲이 우거지고 잡풀이 무성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야산의 정상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비교적 완만한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곳에서도 三國時代의 경질토기편이 상당량 수습되어 이 지역이 고분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상부의 밭을 개간하기 위해 생토면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회청색경질의 直口壺와附加口緣壺가 출토되어 신고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6) 죽동 支石墓 上石産地

延草面 竹土里 죽동마을 일대에 분포한다. 延草面 죽토삼거리에서 河淸面 쪽으로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延草川이 도로와 나란하게 흐르고 이 연초천변에는 소규모의 沖積臺地가 형성되어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도로를 따라 하청면 방향으로 약 500m를 가면 연초천을 가로지르는 죽동교가 있고 죽동교를 건너면 죽동마을이다. 이 마을의 뒤쪽 야산의 말단부에는 일반적인 支石墓 上石의 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바위가 2개 지역에 나뉘어 수십개 흩어져 있다. 이러한 바위 중

일부는 지석묘처럼 반듯하게 놓여져 있고 일부의 상부에는 직경 2~10cm의 聖血이 새겨져 있으며, 돌을 깨어낸 흔적과 쐐기흔이 확인되는 것도 있다. 또한 주변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데 깨어진 상태가 아주 날카로운 割石들로 축대를 쌓은 것이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 지역이 지석묘 상석의 産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도론골 支石墓

延草面 茶貢里 도론골 답511-2번지에 위치한다. 연초면 죽토삼거리에서 河淸面쪽으로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延草川이 도로와 나란하게 흐르고 이 연초천변에는 소규모의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연초천을 따라 많은 수의 支石墓가 분포해 있는데 도론골지석묘는 이들 지석묘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지석묘이다. 이 지석묘는 도론골과 대촌마을 중간지점의 도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석묘의 바로 옆에는 나무 두그루가 있다. 上石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상석의 하부 남쪽에는 支石으로 판단되는 괴석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잡석들이 채워져 있다. 이 지석묘의 상석은 장축방향이 남-북이고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280cm, 너비 190cm, 두께 70cm 정도이다.

#### (8) 대촌 支石墓

延草面 茶貢里 대촌마을 산111-3번지에 위치한다. 支石墓는 도론골지석묘에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250m 지점에 있는 다공교회의 북쪽 언덕위에 위치해 있다. 지석묘의 서쪽으로는 다수의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뒤에는 대나무숲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 언덕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경사면이 절개되어 있고 지석묘는 절개면의 끝에 위치해 묘지의 축대로 이용되고 있다. 상석은 단애면쪽인 동쪽만 지표상으로 드러나 있을뿐 나머지는 대부분 지표하에 묻혀 있는 상태이다. 이 지석묘의 상석은 장축방향이 남-북이고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길이 210cm, 너비 120cm, 두께 50cm 정도의 규모이다.

#### (9) 중리 支石墓群 및 無文土器散布地

延草面 茶貢里 중리마을 일대에 분포한다. 이 遺蹟은 대촌지석묘에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하는 중리마을에 **5**기의 支石墓가 분포해 있고, 지석묘군을 포함한 인접 지역에는 소량의 無文土器가 채집되는 無文土器散布地가

있는 靑銅器時代의 복합유적이다. 지석묘 중 1기는 마을 북쪽 끝 논둑에 있고 1기는 마을내 민가의 담장 사이에, 1기는 마을의 동쪽 도로변에, 2기는 중리마을 남쪽에 있는 소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지석묘의 장축은 동서방향이 3기이고 남북방향이 2기이며,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다. 上石은 길이 160~350cm, 너비 120~240cm, 높이(두께) 50~100cm 정도의 크기이다.

무문토기산포지는 전술한 중리지석묘군이 위치한 마을 전체와 마을의 남쪽과 동쪽의 평탄한 경작지에 분포한다. 무문토기가 채집된 지역은 마을 동쪽 경작지의일부로 2기의 지석묘가 위치한 구릉의 동쪽 말단부에 해당되는데 靑銅器時代 住居址 등의 聚落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문토기가 채집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지역의 경작지도 지석묘와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10)** 德峙里 支石墓群

延草面 德峙里 장터고개 마을 남쪽에 분포한다. 이 유적은 延草面에서 河淸面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위치한 장터고개 마을의 남쪽 경작지에 위치해 있다.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이 지역에 주기적으로 5일장이 섰다고 하여 장터고개라고 한다. 支石墓가 위치한 곳은 서쪽의 鶯山(해발 507.4m)에서 뻗어내려온 완만한 능선과 북쪽의 龍登山(해발 233m)에서 뻗어내려온 완만한 능선사이의 谷間地帶로 소규모의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석묘 2기는 약 50m의 거리를 두고논둑에 남북방향으로 분포해 있다. 지석묘는 2기 모두 장축방향이 동서방향이고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上石의 크기는 길이 140~190cm, 너비 110cm, 높이(두께) 110cm 정도이다.

#### (11) 장터고개 古墳群

延草面 德峙里 장터고개 마을 232번지 일대에 분포한다. 이 유적은 延草面에서 河淸面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1985년 도로보수작업을 하던 중인부에 의해 토기가 발견되어 國立晋州博物館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으며, 國立晋州博物館의 현지조사 때에는 작업이 종료되어 수습조사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유물이 발견된 곳은 서쪽의 鶯山(해발 507.4m)에서 뻗어내려온 완만한 능선의 말단부로 이 곳 일대의 토양은 모두 석비레층 위에 풍화된 淡紫色 表土가 있고 이 지점에서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石槨墓 등에 사용되었던 석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木槨墓가 파괴되면서 부장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일대에서 가끔 토기가 출토된다고 하며 國立晋州博物館에 신고

된 유물은 短頸壺 **2**점, 高杯 **1**점, 把杯 **3**점, 把手附盌 **1**점 등 모두 **7**점인데 이러한 유물들은 古式陶質土器 단계에 해당하는 유물들로 **4~5**세기대의 유물로 추정된다.

## (12) 河清里 遺物散布地

河淸里 遺物散布址는 하청중학교와 거제종합고등학교 운동장의 뒷 부분과 주변일대의 경작지에 해당된다. 학교내 공터를 비롯한 이 일대에는 統一新羅時代 것으로 보이는 印花紋土器片을 비롯하여 주로 高麗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토기파편과 기와편들이 흩어져 있다. 또한 경작지내 과수를 심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와 그 주변에서는 積心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건물지 부재로 보이는 석재들이 노출되어 있고 다량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이 일대에서 新石器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打製石器도 채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일대에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靑銅器時代 이후의 住居址와 각종 건물지 등 여러시기에 걸친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3)** 河清里 支石墓群

河淸里 支石墓群은 河淸面所在地의 남쪽 신동마을에 있는 거제종합고등학교내에 위치한다. 이 학교의 본관 동쪽에 있는 구내식당과 창고 사이의 대나무가 있는 공 터에 약 1m 가량 떨어져 支石墓 2기가 분포한다. 상석의 장축은 1기는 동서방향, 1기는 남북방향이며 평면형태는 1기는 長方形, 1기는 楕圓形이다. 上石의 크기는 길이 140~220cm, 너비 100~140cm, 두께(높이) 40~50cm 정도이다. 하청리 지석묘군은 河淸里 遺物散布地 내에 위치하는데 이 주변에는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석묘도 많았으나 이 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고 일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신축 당시 磨製石劍을 비롯하여 磨製石鏃등의 青銅器時代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 (14) 동리 古墳群

河淸面 柳溪里 동리마을 산 **83·91**번지 일대에 분포한다. 동리 古墳群은 河淸面 所在地를 서쪽으로 에워싸고 있는 낮은 구릉상의 야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을 경계로 행정구역상 河淸里와 柳溪里로 나뉘어지는데 古墳群은 양쪽에 걸 쳐 분포하고 있으나, 주변 마을의 이름을 따라 동리 古墳群이라고 부르고 있다. 河 淸面 입구에서 하청중학교와 거제종합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해서 지방도로로 약 1km 정도 가면 좌측에는 동리마을로 넘어가는 해문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올라 정상부에 이르면 파괴된 封土墳 2기와 石槨墓 1기가 있다. 또한 유계리쪽 동리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동쪽 경작지 사이에 농로가 있고 이 농로를 따라 올라가면 받과 산의 경계지점에 파괴된 봉토분 1기가 있다. 3기의 봉토분은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으며 봉토분의 단면상에 석재들이 확인되고 있다. 봉분의 현재 직경은 8~9m 정도이고 높이는 약 2m 가량이다. 해문고개에 있는 파괴석곽은 길이 170cm, 너비 80cm 정도로서 현재 1단 정도의 벽석이 남아 있고 바닥에는 屍床石으로 보이는 板石도 확인된다.

#### (15) 河清城址

河淸城址는 河淸面 河淸里 63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하청성지는 해안가에 위치한 독립구릉의 7부 능선상에 축조된 石築城이라고 보고되어 있지만, 성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조잡하게 쌓여진 석축열만 확인된다. 잔존하는 석축의 최고 높이는 약 120cm정도이며 10~20cm정도의 막돌로 허술하게 쌓아진 것으로 보아 성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河淸彎 일대가 조망되는 위치인데 구릉 전체를 일주하듯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서는 다량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채집되었다. 채집된 토기편과 기와편은 주로 高麗時代에서 朝鮮時代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곳에 건물지와 같은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성곽유적이라면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6) 창동 遺物出土地

河淸面 河淸里 **526-4**번지 창동보건소 주변에 분포한다. 하청보건소는 **10**여년 전에 건축되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서 磨製石斧와 石劍, 그리고 無文土器가 출토되어 현재 거제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대의 지형은 동쪽의 산지에서 내려오는 구릉 및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청동기시대의 住居址나 支石墓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바로 인근 주택가에도 과거 지석묘가 있었고 남쪽의 하청리 지석묘군과 동쪽의 성동리 지석묘군과도 인접한 지역으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 (17) 성동 支石墓群

河淸面 河淸里 성동마을 일대에 분포한다. 河淸面所在地의 우회도로를 따라 長

木面 방향으로 가면 하청면소재지 중심부로 관통하는 구도로와 만나기 직전에 성동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성동마을이다. 이마을의 가장 동쪽에는 마을 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의 뒤쪽 약 30m 지점의 도로변에서부터 30~100m 간격을 두고 남북방향으로 3기의 지석묘가 분포해 있다. 상석의 장축은 동서방향이 1기이고 남북방향이 2기이며, 평면형태는 楕圓形이 2기이고 梯形이 1기이다. 上石은 길이 150~260cm, 너비 140~200cm, 높이(두께) 50~130cm 정도의 규모이다.

# (18) 巳還 支石墓

河淸面 實田里 已還마을 548번지에 위치한다. 河淸面所在地를 벗어나 長木面 방향으로 약 1km를 가면 已還마을인데 이 마을의 도로변에 支石墓 1기가 있다. 이마을에는 金海金氏 金寧君 牧卿派 已還金氏로서 巨濟島入鄉祖인 松年公 金玉春의묘인 松年公墓苑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래에서 사환마을로 불리고 있다. 지석묘는 이 송년공원묘원 입구에 있는 묘지의 가장자리 대나무숲에 비스듬히 눕혀져 있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河淸彎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과거이곳에서 磨製石斧가 출토된 적이 있다고 한다. 상석의 장축은 남북방향이고 평면형태는 長方形이며, 上石의 크기는 길이 210cm, 폭 140cm, 두께(높이) 80cm 정도이다.

# (19) 와항 支石墓

河淸面 實田里 와항마을 977번지에 위치한다. 河淸面所在地를 벗어나 長木面 방향으로 약 1km를 가면 已還 支石墓가 있고 이곳에서 實田마을로 가는 고갯마루에 있는 마을이 와항마을이다. 支石墓는 마을 앞 버스정류소 북쪽 약 20m 지점에 있는 도로변 대나무숲 가장자리에 있다. 지석묘는 도로변에 비스듬히 세워져있고 일부가 깨어져나간 상태이며 주변 일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의하면 도로공사때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河淸彎 해안에서약 100m 떨어져 있다. 지석묘의 장축은 남북방향이고 평면형태는 不定形이며, 上石의 크기는 길이 170cm, 폭 120cm, 두께(높이) 80cm 정도이다.

#### (20) 河清 北寺址

河淸面 柳溪里 산126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柳溪里 鶯山(해발 507.4m) 중턱에는 光淸寺가 있는데 이 곳 광청사 뒤에는 浮屠 1기가 있으며 이 곳에서 등산로를

따라 **20**여분 올라가면 대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고 이 일대에서 寺址가 확인된다. 현재 **60**여평 규모로 보이는 金堂 礎石과 金堂址의 앞 좌우에 원형의 積石遺構 **2** 개소, 그리고 북쪽의 건물지 축대로 보이는 石築遺構 **2**개소 등이 확인되는데 전체 면적은 **200**여평 일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찰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北寺 梵鐘에 새겨진 銘文에는 遼나라 太平 6년(1026)에 鑄造하였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그 규모는 총고 73cm, 구경 51.5cm, 중량 121斤이다. 우리나라 년대로는 고려 顯宗 17년에 해당하는데 北寺란 사찰이 세워진 시기는 이보다 앞서거나 당시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범종은 고려 恭愍王 7년(1374) 왜구가 직접 약탈해 갔고 佐賀縣 勝樂寺에 入施되었다가 勝樂寺 폐찰로 지금은 佐賀縣 惠日寺에 옮겨져 있다.

河淸 北寺는 언제 폐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현존 범위로 보아 비교적 큰 사찰이 위치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 북사가 폐사되고 朝鮮 仁祖 元年(1623)에 정수사라는 사찰을 신축하였는데 승려 수는 70여 명이었다고 전한다. 현재 광청사 뒤의 묘지 가장자리에는 浮屠 1기가 있는데 이 부도는 정수사 부도로 알려져 있다.

# 2. 考古・歷史分野의 調査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4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면적은 147,533㎡(약 44,628평)이다. 현장조사는 사업지역 전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지형은 해발 25~105.5m의 야산과 야산 아래의 곡부로 동쪽에 있는 鶯山(해발 508.2m)이 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남해 바다와 만나는 구릉성 산지와 산지 사이의 곡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서쪽은 바다로 개방되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구릉성 산지로 이어지며 동쪽은 비교적 높은 산지로 막혀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제시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의 남쪽을 가지구, 북쪽을 나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지구는 쓰레기매립장의 남쪽으로 정상부는 해발 **66.5m**의 烈女嶝으로 불리는 작은 야산으로 서쪽과 남쪽은 바다로 개방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이 열녀등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사면에 해당되며, 현재 소나무와 잡목으로 우거진 숲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지구 조사결과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능선의 정상부와 남서쪽 사면에서 근대분묘 **3**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지구는 쓰레기매립장의 북쪽과 동쪽으로 정상부는 해발 105.5m의 일산으로

불리는 야산으로 서쪽과 북쪽은 바다로 개방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일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그 사면에 해당되며 현재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진 숲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지구 조사결과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능선의 정상부와 북쪽 및 남쪽 사면에서 근대분묘 12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사면에는 근대에 조성된 분묘 **15**기가 곳곳에 분포해 있을 뿐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동쪽의 비교적 높은 앵산에서 서쪽 해안가로 개방되는 가파른 산지로서 지형이 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3. 社會・民俗 및 地名由來 分野의 調査

# 1) 社會・民俗 分野의 調査

민속은 각 지역의 민간신앙·세시풍속·전통놀이·구비전승·제례행사 등 일상 생활에서 전해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가 아주 광범 위하다. 그리고 다양한 민속행위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의식이나 특성, 생활양식 등을 내포하고 있다.

거제지역 역시 다양한 민속행위나 놀이가 전해오고 있으며, 전승되고 있는 것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다. 그런데 거제지역에 전승되는 민속과 관련된 특징중 하나가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활자체에서 해양과 관계된세시풍속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농경문화의 세시풍속이 중심이되고, 일반적인 어로와 관계되는 세시풍속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이채롭다. 그 이유는 과거 전통문화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무형문화재와 그 외 의식과 놀이, 동제의 사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6)

먼저 거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 민속으로 향토문화재인 <굴까러(로) 가세>(장목면 시방리)라는 노동요(민요)가 전하고 있다. 이 노동요의 시작 연대는 알수 없으나, 춘궁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낙네들이 바닷가에서 굴을 캐면서 부른 노래이다. 가사의 내용이 익살스럽고 흥겨운 면이 있으나, 바닷가 삶의 고단한 애환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巨濟 七鎭農樂>(사등면 지석리)가 행해지고 있다. 놀이의 연원은 壬辰倭亂 때로 추정되는데, 당시 왜군이 침입해 오자 마을

<sup>46)</sup> 거제시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慶南民俗資料集』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尚南道支部, 1993). 『巨濟의 文化遺蹟』(거제시, 1997), 『巨濟市誌』(巨濟市誌編纂委員會, 2002), <거제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횃불을 들고 성 위에서 농악을 벌이며 적을 교란시킨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후 靑鎭과 紅鎭으로 나누어 농악대결을 벌이는 놀이로 전승되었다. 놀이의 특징은 복장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농악복 대신 당시의 군복을 착용하고 행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팔랑개 漁場놀이>(옥포동 팔랑포마을)는 어로와 관련하여 풍어를 자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팔랑개 어장놀이보존회'가 구성되어 전승,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 종류인 <石射(일명石箭) 놀이>가 행해지는데, 옛날 병사들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던 것이 놀이로 전승된 것이다. 그리고 <통영오광대(일명 학산오광대) 놀이>를 본받은 <거제 오광대놀이>가 음력 정월보름날에 행해졌다고 전하나, 일제강점기 때 탄압을 받아 현재그 맥이 끊어져 전승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 <별신굿>, <풍어제> 등이 지역에 따라 아직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신년 해맞이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등지역문화행사도 정착되어 있다.

또한 거제 일대에는 많은 설화와 전설,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설화는 주로 지명유래의 전설과 특유한 인물전설,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전설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려 毅宗과 관련된 지명과 설화가 많으며, 지역의 특성상 왜구(또는 왜적)와 관련된 설화도 많이 구전되고 있다. 민요의 경우, 거제가 원래 도서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전되고 있는 민요들 중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노동요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구전되고 있는 민요로는 여러 종류의 <모내기>와 <어업>과 관련된 많은 노래와 <타작노래> 등의 노동요와 <지신밝기 노래>와 <상여소리> 같은 의식요, <거제봉산타령>, <챗배노래>, <큰애기노래>, <떡타령> 등의 동요가 전승되고 있다.

#### 2) 조사지역의 지명유래

#### (1) 延草面 汗內里 지명전승

연초면 '汗內(里)'는 '하내, 한내, 한해, 한곡, 하냇골, 한냇골' 등 여러 지명으로 도 불리우며, "따뜻한 양지 쪽에 큰 내[川]가 있는 마을이다"라는 뜻의 우리말 "마른 내"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본래 거제군 연초면 지역이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개편으로 訥隱, 薪田, 茅沙를 병합 '한내리'가 되고 '통영군 연초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53년 '거제군 연초면'으로 재편입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내마을을 중심으로 동쪽에 "골짜기 안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유래된 '골-안'마을이 있으며, 한내마을 서쪽에 "찬샘이 있다"고 하여 유래된 '冷井', 또는 '참새-몰'과 "섶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유래된 '섶밭-단'[薪田]으로 불리우는 마을

이 있고, 한내마을 남쪽에 앞쪽에 '누른-개'라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에서 유래된 '누른-개'[訥隱, 訥院浦]마을이 있는데, 옛날 어느 현관이 모함에 의하여 이곳으로 유배된 후, 세상만사를 귀찮게 여기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일생을 지냈다는 전설이 있다. 한내마을 서북쪽에는 '茅沙'[모새]마을이 있으며, 이곳에는 큰 마을이라는 뜻의 '큰-모새'와 작은 마을이라는 뜻의 '작은-모새' 마을이 있고 모사마을 서남쪽에 '올끼-미'(올가미)마을이 있으며, 한내마을 아래쪽에 있어 '아릿-몰', 위쪽에 있어 '웃-몰'로 불리우는 마을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산·등성이·골짜기·바위·논·들을 비롯하여 기타 전승되는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 등성이와 관련된 지명으로 한내마을 동쪽에 "작은 산"이란 뜻의 '작은-봉'이 있고 "큰 산"이란 뜻의 '큰-봉'과 "'굴바우'라는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인 '굴밧-등'이라는 등성이가 각각 있으며, 모사마을 북쪽에 '방밧-등'이라는 등성이가 있다. 골짜기로는 한내마을 남쪽에 '새밭-골'이, 서북쪽에는 '한내밋-골'이 있고, 동쪽에는 "'명산-바우'가 있다"고 하여 '명산바웃-골'로 불리 우는 골짜기가 있으며, 명산바웃-골 동쪽으로 '육돗-골'이 있다. 그리고 모사마을 남쪽에는 "논이 있다"고 하여 유래된 '논-골'과 신전마을 뒤쪽에 "큰 골짜기"라는 뜻의 '큰-골'이 있으며, 큰골 위쪽으로 '큰봉-골'이 있다. 바위로는 한내마을 동쪽 에 있는 '명산-바우'를 비롯하여 이 바위 뒤쪽에 형상이 마치 "병풍처럼 생겼다" 고 하여 붙은 명칭인 '병풍-바우'가 있고, 아래로 "옛날 부엉이 집이 많았다"고 하 여 '부엉이- 바우'로 불리우는 바위와, 모사마을 동쪽에 "높이가 일곱 길이나 된다" 고 하여 '일곱질-바우'로 불리우는 바위가 있다. 기타 전승되는 지명으로 한내마을 가운데(복판) 버덩에47) 있는 '번덕-들'이라는 들과 "한새밋골에 있다"고 하여 '한-새미'로 불리우는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약물이라 하여 물맞이를 하였다고 전한 다. 그리고 모사마을 서북쪽에 있는 가는(작은) 개[川]를48) 가리키는 '작은-개'가 있다.

#### (2) 河淸面 石浦里 지명전승

하청면 '石浦(里)'는 '석개', '돌개'로도 불리운다. 지명은 "마을이 鶯山 아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이 가파르고 냇가에 돌이 많은 갯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청면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우리말 "서개"가 "석개"로 파생되어, 한자어 '石'字에 '浦'字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본래 거제군 하청면 지역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개편으로 '석포리'로 되어 '통영군 하청면'에 편입되었고, 1953년 '거제군 하청

<sup>47)</sup> 높고 평평하며 나무가 없고 풀만 자란 거친 들[野]을 말한다.

<sup>48)</sup> 강이나 내[川]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말한다.

면'으로 재편입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석포마을이 있으며, 석포마을 동북쪽에 '금당-개', '金塔浦'로 불리우는 마을과 같은 명칭의 작은 개[川]가 있으며, 금당개마을 서북쪽으로 "외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 '외안-개'로 불리우는 마을과 같은 명칭의 개[川]가 있는데, 외안개마을에는 개천 옆에 있는 '큰-금당개'와 큰금당개마을의 북쪽에 있는 '작은-금당개'마을이 있다.

산과 등성이·고개·골짜기·보·논·들과 관련된 지명들과 바닷가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로 개[川]와 관련된 지명들이 다수 전승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과 등성이, 고개와 관련된 지명으로 석포마을 서쪽 '목섬' (또는 예침도)의 동남쪽에는 전설에 "열녀를 묻었다"고 하여 '烈女嶝'으로 불리우는 산이 있으며, 석포마을 남쪽에서 연초면 한내리로 통하는 '모샛- 재'고개와 금당마을 북쪽에서 덕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금당개탑- 재'가 있는데, "고개 위에 탑처럼 돌무더기를 쌓아 놓고 서낭을 모셨다"고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그리고 석포마을 동쪽에 지형이 마치 "홈처럼 좁고 길다"고 하여 붙은 명칭인 '홈-골'이라는 골짜기 위에 '홈골-등'이라는 등성이와 동북쪽의 '연낏-등'이라는 등성이가 각각 있고, 금당개마을 서쪽에 "고개 너머에 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인 '재너맷-등'이 있다. 재너맷등 북쪽에는 지형의 형상이 마치 "일산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산-등'으로 불리우는 등성이가 있으며, 큰금당개마을 북쪽에 '개안-등'이라는 등성이가 있다. 골짜기로는 석포마을 서쪽에 "감 장수가 살았다"고 하여 '감쟁잇-골'로 불리우는 골짜기를 비롯하여 감쟁잇골 남쪽에 있는 '깟밧-골'이 있으며, 석포마을 남쪽에 "춘향이가 살았다"고 전하는 '추냉이집-골'(추냉이집고랑)이 있다.

개[川]와 관련되는 것들로 금당마을에 있는 '금당-개'를 비롯하여 석포마을 앞에 지형이 구불구불 한 '꼭-개', 마을 서남쪽에 '큰-개'와 '작은-내'라는 개[川]가 있으며, 마을 북쪽에 "논이 있다"고 하여 '농-깨', '농-포'로 불리우는 개[川]가 있다. 논이나 들과 관련된 지명들은 짯밧골에 있는 '짯밧-고랑'이, 추냉이집골에 '추냉잇-골'이, 그리고 감장들에 '범벅-배미'로 불리우는 논이 있는데, 범벅배미는 "옛날 어느 흉년에 범벅을 주고 바꾸었다"라는 전설이 전한다. 그리고 석포마을 동쪽에 '큰 들'과 감쟁이골에 있는 '감장-들', 또는 '감쟁이-논고랑', 꼭개에는 '꼭 갯-들'로 불리우는 들이 있다. 이 밖에 석포마을 뒤쪽에 '큰-보'와 뒤쪽 중앙에 위치하여 '중보'로 불리우는 堡와 중보 아래에 "찬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참새미-보'가 있으며, '일산-여'라는 암초가 일산등 아래에 있다.

## (3) 河淸面 德谷里 지명전승

하청면 '德谷(里)'은 '덕골'로도 불리운다. 조선후기 柳溪平野에 "앞에 넓은 廣耳 바다가 있다"고 하여 '外加耳'로 불리웠던 지역에 있던 마을 중 하나로 덕곡이란 지명은 "(마을) 뒤쪽에 큰 골짜기가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본래 거제군 하청면 지역이었으나, 조선말기인 高宗 26년(1889), 德谷里와 海晏里로 분리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개편으로 '海晏'마을을 병합하여 '덕곡리'가 되어 '통영군 하청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53년 '거제군 하청면'으로 재편입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곡마을 옆에 '먹-개'(또는 黑浦)마을과 개[川]가 있는데, 먹개라는 지명은 "갯가에 벼룩처럼 생긴 돌이 있었고, 갯가의 땅이 검은"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먹개마을 서쪽으로는 '개-안'(또는 浦內)마을과 솔병산의 줄기가 해변가로 뻗어 포구를 이룬 마을과 같은 이름의 灣이 있고, 덕곡마을 동쪽에 '아릿-개'마을과 개[川]가 있다. 이 외에 덕곡마을 서쪽에 지금은 폐광되었지만, 일제강점기 때에는 금을 캤다는 '德谷鑛山' 근처에 있는 '금장'마을과 덕곡마을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海晏'마을, "해안 동쪽과 서쪽에 있다"고 하여 '동-두리'와 '서-두리'로 불리우는 마을이 있다.

산과 등성이 · 고개 · 골짜기 · 보 · 논 · 들과 관련된 지명들은 석포리와 마찬가지 로 바닷가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로 개[川]와 관련된 지명들이 다수 전승되 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과 등성이, 고개와 관련된 지명으로 해안 서남쪽의 '솔병산'을 비롯하여, 개안마을 서북쪽에 형상이 마치 "말처럼 생겼 다"고 하여 '天馬山'으로 불리우는 산이 있다. 등성이는 덕곡마을 동쪽에 '띠밭-매 기'와 '노랑맷-등이 있고, 금장마을 아래에 '살맷-등', '삼부잣-골'이라는 골짜기 아래에 "삼밭이 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인 '삼밭-등', 그리고 해안 북쪽에 "당산제 를 모셨다"고 하여 '당산-등'으로 불리우는 등성이가 있으며, 해안 남쪽으로부터 다공리로 넘어가는 '질매-재'와 '할미바우'에서 석포리 금당마을로 넘어가는 '목-너미'로 불리우는 고개가 있다. 골짜기와 바위로는 천마산 줄기에 모양이 마치 "할 미처럼 생겼다"하여 '할미바우' 또는 '姑岩'으로 불리우는 바위의 서쪽에 있는 골 짜기인 '강-울'을 비롯하여 솔병산 서쪽에 골이 세 개로 나누어 진 '삼부잣-골'이 있으며, 삼부잣골 서쪽에는 '배나뭇-골'이, 동쪽에는 찬물이 있는 '참막-골'이 있으 며, 참막골 서쪽에는 '북-골'이 있다. 그리고 남쪽 해안에 '큰-골'이라는 큰 골짜기 가 있으며, 이 남쪽으로 "골짝기에 약물이 있어 칠월 칠석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목욕을 했다"고 전하는 '매악숫-골'이 있다. 동쪽 해안에는 '새장텃-걸' 이 있고, 이 아래로는 '沙場-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덕곡마을 서남쪽에 '먹 갯-골'이 있다. 바위로는 할미바우 외에도 솔병산 위에 있는 생김새가 마치 "상투 처럼 생겼다"고 하는 '상투-방우', 할미바우 서쪽에 "장군처럼 생겼다"는 '장군바 우'가 있고, 이 장군바우 동쪽으로 "몽돌처럼 둥굴다"고 하여 '몽돌-바우'로 불리 우는 둥근 바위가 있다. 그리고 삼밭등 동쪽에 형상이 마치 "코처럼 생겼다"는 '코 - 바우'와 덕곡마을 남쪽에는 '외- 바우'가, 서쪽에는 긴 바위라는 뜻의 '진-바우'가 각각 있다.

이 밖에 "덕곡마을 뒤쪽에 있다"고 하여 '딧-들'이라는 들과 돌담불이 많아 '담불-배미'로 불리우는 논이 있으며, 딧들 구렁에49) '구리-실'이라는 들이 있다. 그리고 노랑맷등 앞에 "새로 생겼다"고 하여 붙은 '새논-들'과 새장텃걸에 있는 '새장팃-들'이 있다. 또한 동쪽해안에는 '새집-논'이, 북쪽 해안 아래에 "포구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인 '포구나무-밑'이라는 논이 있다. 기타 덕곡마을 어구에 장승이 서 있다고 하여 '장선-걸'로 불리우는 숲과 덕곡마을 북쪽에 '큰-여'와 '작은-여'라는 여가50) 있고, 동쪽 해안에 큰 돌이 있다는 '돌둑-끝'이라는 모롱이 (모퉁이)가 있다.

##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상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하청면 석포리 일대의 '거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를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4번지 일원이며, 조사대상면적은 147,533㎡(약 44,628평)로서 이 지역에는 '거제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역의 중앙에 있는 거제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남쪽지역을 가지구, 북쪽지역을 나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대에 조성된 분묘 15기가 확인되었을 뿐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고 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동쪽의 비교적 높은 산지 에서 서쪽 해안가로 연결되는 가파른 산지로서 지형이 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적인 조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내에 분포해 있는 **15**기의 근 대분묘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이전에 이장 등의 행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 진행중에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sup>49)</sup> 움푹하게 팬 땅.

<sup>50)</sup> 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말한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復刻本)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慶尙道邑誌』

『嬌南誌』

『三國志』<魏書> 東夷傳

鄭澄元,「山達島貝塚에 대한 一考察」,『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 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 17, 19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李承哲,「貝塚遺蹟址」,『巨濟文學』2,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東亞大學校 博物館,『巨濟 烏壤城址』, 1994.

-----,『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1995.

-----, 『巨濟市 城址 調査報告書』, **1995**.

정약용 지음 · 이민수 옮김, 『我邦疆域考』, 범우사, 1995.

巨濟市,『巨濟의 文化遺蹟』, 1997.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東亞大學校 博物館, 『巨濟 鵝洲洞遺蹟』, 199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8-경남편 I』, 2000.

巨濟市誌編纂委員會,『巨濟市史』(上・下), 2002.

東亞大學校 博物館,『巨濟 江望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查 報告書』,2002.

國史編纂委員會,『한국사1-총설』, 2002.

巨濟市·東亞文化研究院,『文化遺蹟分布地圖-巨濟市』, 2005.





版





도판 1. 조사지역 원경(서→동)



- 39 -



도판 3. 가지구 전경(북→남)





도판 5. 나지구 원경(북→남)



도판 6. 나지구 근경1(동→서)



도판 7. 나지구 근경2(서→동)



도판 8. 쓰레기매립장 전경(동→서)



- 43 -



도판 11. 근대분묘 **6호(서→동**)





도판 13. 근대분묘 9호(남→북)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查報告 第**64**輯 거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5**년 **12**월 **19**일 발 행 일 / **2005**년 **12**월 **20**일

## 編輯·發行/ 製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41-811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 B/D 401호

TEL: (055) 265-9150~3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

인쇄처/부광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055) 285-1834